

##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 열반 100주기 기념

### 덕숭총림 수덕사, '다례재' 와 '국제선수행대법회' 봉행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스님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례를 6월 14일 오후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했다. 다례재는 진제 종정 예하와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증명으로 문도대표에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봉행위원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봉행부위원장 종회의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범등스님, 교육원장 현승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으로 각각 구성됐다.

한편 경허선사기념사업회 추진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길없는 길'을 주제로 경허선사 열반 100주기 기념 국제선수행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경허선사 법제자인 설정스님(덕숭총림 방장), 대봉·대진스님(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우봉스님(유립 관음선원 법문과 무차(無遮)토론법회, 수덕사-천장사-개심사로 이어지는 '길 없는 길' 도보 순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순례자



들(유럽 관음젠스쿨, 헝가리 원광사과 무상사, 화계사, 수덕사에서 정진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을 비롯해 수행자, 학자, 재가불자(일화회)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장 설정스님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연꽃을 들어 울릴 때 가섭존자의 미소, 달마선사의 마음을 바로 봐 부처를 이룬다는 말씀, 경허선사의 오도송인 태평가, 모

두 한 뜻이다. 고단하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마시고, 오면 가고...., 회노애락을 느끼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경허선사의 법력을 깨닫고 부처를 찾으라고 당부했다. 국제선수행 법회 참석 대중들은 경허선사의 가르침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았다고 했다. 이어진 법문에서 무상사 조실 대봉스님은 "승산스님도 경허선사 법맥을 이었다. 경허선사를 기억하고 가르침을 배우는 일은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정진 중인 외국인스님들을 대표해 경허선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수행법회는 무차대회를 통해 경허선사의 수행기풍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선수행의 세계화 방안과 한국선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설문지를 통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회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했다.

사진제공\_수덕사

## 한국문화사업단, 뉴욕에서 한국불교와 전통문화 알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스님)이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한국불교 및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사업단은 6월 7일~15일까지 미국 뉴욕 아스토르센터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2012 한국 사찰음식의 맛, 템플스테이 경험(Taste of Korean temple food, Experience Korean templestay)' 행사를 열었다.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1700년 역사를 지닌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한국불교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화사업단은 이번 행사 중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New York)에서 '한국사찰음식 시연회'를 열었다. 또 미국 현지 언론인, 유명 셰프 및 요리학교 교수진, 요식업계 종사자와 파워블로거,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 총영사관 및 주재 문화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해 한국불교의 멋과 맛을 소개하고 전통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5일에는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최근 미국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치카트트럭(Kimchi Taco Truck)을 이용한 거리홍보 프로모션을 진행, 뉴욕 시민들에게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 6월 11일에 대한불교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렸던 사찰음식·템플스테이 홍보를 위한 '한국교민 불사 초청의 밤' 행사 모습이다.

##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캄틀린포체 방한법회



불기2556(2012)년 6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북인도 따시종 캄바갈 사원의 수장인 캄틀 린포체 초청법회를 가졌다. 법회는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아췌노장님, 투톱리마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법문한 캄틀 세둠니마는 캄틀 린포체의 아홉 번째 환생자로, 린포체와 여러 독단들로부터 수행의 가르침을 받았고, 독

빠까규의 모든 가르침의 전승을 전수 받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무문관 수행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외의 시간은 주로 국내외의 제자들에게 관정을 주거나 구전, 수행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또한, 총림으로써 불사에 힘쓰며 특히 위대한 강맥을 모시고 강원생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불법 흥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한편, 캄바갈 사원은 다람갈라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실 수행에 관심이 많은 한국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방문한다. 한국의 많은 불자들과 인연을 맺어온 린포체는 5월 24일 밀양청소년수련원에서 법문을 시작으로 안성법등사, 서울 미륵암 등에서 법회를 보았으며, 6월 17일에는 울산 람립학당에서 금강살타 관정 및 백자진언 구전 법회를 할 예정이다.

사진/글\_전소연 국제포교사



#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불교문화를 전하는 '조계사 템플스테이지원팀(외국인안내소)'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로 1910년에 창건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한국사와 한국 불교사의 중심에서 격동의 역사를 함께해 온 사찰이다. 서울의 중심 지역에 자리하면서 경복궁을 비롯한 5대 궁궐과 사간동 꺾다리 거리,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등과 함께 주요 역사·문화·관광 벨트에 위치해 있어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템플스테이지원팀(외국인안내소)은 조계사 신도회 조직 중 소임본부 소속의 한 팀으로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한번꼴로 시간을 내어 외국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영어가 거의 국제적인 공용어로 되다 보니 영어 봉사요원이 대부분이고 일본어 담당도 몇 분 있다.

물론 외국어와 불교적 소양이 두루 갖춰진 분들로 국제포교사와 일반 불자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에 2~3명이 근무하며, 세계 각지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안내서 제공, 템플투어, 차담, 연꽃 만들기, 단주 만들기, 참선 해보기 등을 함께 하며, 불교와 불교문화 그리고 주변 관광지나 가 볼만한 곳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찾는 곳들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불교 수행을 하거나 관심 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참선을 해 볼 수 있는 곳을 찾으면 국제선센터, 화계사 국제선원, 불교영어도서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준다.

한국불교의 중심지 조계사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을 맞이하는 템플스테이

지원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삶에 대한 성찰이 깊은 사람들은 불교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한다. 템플라이프나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도,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길을 가는 불

교로 안내 되도록 하여 현대인들의 거칠고 메마른 마음에 불법의 감로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_ 조계사 템플스테이지원팀장 도래 노점선  
02-722-2206



프로그램	템플라이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다도, 참선, 사찰음식공양, 연꽃만들기, 템플투어 - 사중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주일 전 예약 요함.
	미니템플라이프	- 매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 차담, 연꽃만들기, 단주만들기, 템플투어, 참선해보기 -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진행

## 동국대 국제선센터, 외국인스님 초청 법회 지정스님의 '일상생활 속 수행'

한국불교 세계화의 일환으로 매주 외국인 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는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스님)가 5월 26일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교학처장 지정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음은 영어로 진행된 법문 내용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요?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은 편치 않음, 뭔가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서 편안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력이 결국엔 해탈로 인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이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출가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세히 그 상황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고통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외부적 요인을 제공한 상황이나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결국 고통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부적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는 한 고통은 없앨 수 없습니다. 세상이 모두 무상하니 물론 이 고통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긴 하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 내가 욕심을 내는 한 그 고통은 또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수행이란 자기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마음 상태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서 번뇌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과 알아차림은 찰라 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분별지에 깨어 있도록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나 좌복 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만에는 나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기 보다는 바른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그리고 정진한 노력의 결과는 겸허히 그리고 냉철히 받아들이고 부족했다면 끊임없는 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 중에 일상에선 수행을 잇는다고 하셨는데 초보자에게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좌복 위에 앉아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가까운 수행처(선방)에 가서 몇 시간씩 연이어서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수행은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 때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실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막연한 걱정에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저 바른 노력만 기울일 뿐, 즉 '지금 여기에' 충실할 뿐 걱정은 하지 않아야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삼법인, 사성제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팔정도(바른노력)를 행하는 것이 불자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바르게 깨어 있어 충실하고 행복한 나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동국대국제선센터 02-2202-3891

## 오지 아이들에게 교육사업과 봉사활동 펼쳐 히말라야에 꿈과 희망을 심는 영봉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영봉(법명 수안)스님이 그동안 네팔과 태국의 미얀마 난민촌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육사업과 봉사활동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영방송국인 KBS 1TV에서 2012년 5월 28일(부처님오신날) 오전 11시에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영봉스님은 "수행 방법으로 히말라야에서 만행을 하다 느낀 바가 있어서, 도반과 더불어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남에게 알려지도 않고 묵묵히 수행처럼 활동을 해왔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를 있게 한 모든 인연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이 길이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스님은 1988년 칼라파타르(5,545m)를 오른 뒤 1990년 부처님오신날 승려로는 처음으로 팀을 꾸리지 않고 단독으로 메라픽(6,476m)을 올라 화제가 되었다. 이후 1991년, 1992년에 안나푸르나 2봉과 4봉을 원정하면서 알게 된 포터들이 자신의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며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한 끝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자 카트만두에 「세종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원」을 개설, 가난한 포터와 그 자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누포 캠프)에서 힘



겹게 살고 있는 고아들에게도 눈을 돌려 교육지원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다. 누포 캠프 안에 있는 불교 중학교에 교사들의 급료와 학용품 지원하고 있고, 누포 캠프 안에 붓다 사사나 무료학교를 직접 개교하여 어학원과 컴퓨터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근간에는 히말라야 오지마을인 파쁘레에 초등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종단에서 소임을 맡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사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보니 자연 신도들이 많이 있는 스님도 아니다. 오로지 강원도 왕산면 대거리 작은 토굴에 기거하며 해마다 재배한 오가피를 여러 날 밤을 새며 달여 도반과 지인들에게 나눠주면 그 보답으로 들어오는 보시금을 가지고 이렇게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나만 잘되면 하는 집착 속에서 방황하는 이런 때에 청량한 바람 소리 같은 영봉스님의 미담이 시나브로 알려져 이제 세상을 향한 시원한 감로수가 되려고 한다.

cafe.daum.net/dreamofhimalnaya 히말라야의꿈



# [활동가 편지] 오토바이 타고 동네마다 의약품 날라

## 캄보디아 뿌레이끄랑 마을 이야기

찜뜨립 쭈어?(안녕하세요?)

6월 3일 캄보디아 총선이 있어 분주한 분위기다. 덕분에 뿌레이끄랑 마을에 들어가는 길에 모래를 깔아 길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제는 비가 내리더라도 마을로 들어가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전에는 비가 오면 노면이 진흙이라 눈처럼 미끄러워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났다. 뿌레이끄랑 공부방 학생들도 자전거가 미끄러져 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얼마 전에는 위드아시아 그로웃마을 공부방에서 수업을 받던 16살 리나라는 소녀가 큰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안

이 너무 가난해 공부방에 나오지 못하고 프놈펜 봉제공장에 일을 하러 갔단다. 그런데 공장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거기다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며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해 병을 얻은 것 같다. 리나라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 있을 때에도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간간히 피를 토해, 한 번은 너무 심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한다. 충분히 쉬면서 약을 복용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면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해 또 일을 해야 한다. 고향집에 있는 식구가 모두 7명인데 엄마와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며 자주 싸우고, 5명의 동생들은 모두 아프다. 물론 병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낫기만을 기도하고..... 참으로 안타까

운 가족사다.

그래도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은 위드아시아의 후원자들께서 후원해준 약들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약품을 후원받을 수 있다면 미끄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마다 방문하여 아픈 사람들에게 약품을 지원해주고 싶다.

또한, 위드아시아 공부방이 요즘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인근에 퍼져나가

고 있다.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오는데, 할아버지가 손녀를 매일 오전오후 공부방에 데려다주는 정겨운 모습도 볼 수 있다. 또 11살 먹은 아이가 동생들 세 명을 데리고 공부방에 오기도 한다. 이제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도 서서히 공부방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여 이 곳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공부방을 만들려고 한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글: 전근수(위드아시아 캄보디아 지부장) 후원계좌: 농협 355-0004-5196-53 사)위드아시아 후원문의: 위드아시아 02-3444-8007



## 지구촌공생회, 몽골에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불교계 대표 국제개발구호 NGO인 지구촌공생회가 몽골의 황무지 개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몽골 지부는 2010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한국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몽골 게르촌 농업전문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은 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 보건의 기회를 찾아 수도인 울란바타르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울란바타르시의 높은 물가와 실업으로 울란바타르 외곽에 게르와 판자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의 재정적 역량과 인식부족으로 기초 인프라 구축과 공공투자가 거의 없어 게르촌의 빈곤율은 점점 높아졌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주민들 60여 명,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기자재 지원, 농업 인식 증진 캠페인을 진행하여 게르촌 지역의 자급자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도에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13동에 8m×30m 크기의 텃밭과 6m×30m 비닐하우스 교육장을 구축하였고, 이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



월주근스님과 울란바타르시 비닐하우스 교육장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닐하우스 교육장 5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지구촌공생회는 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농업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인이 관련 기술을 통해 취업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촌공생회 몽골 지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사업팀 이수진 간사는 "지구촌공생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재배 실습을 겸한 농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게르촌 유목 이외의 또 다른 삶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만족해한다."고 했다.

후원문의: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www.goodhands.or.kr

## 참좋은인연 BUD, BUD 청소년 해외봉사단 1기 모집

국제구호개발 NGO 참좋은인연 BUD가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3차례 नेपाल 수도 카트만두, 룸비니, 포카라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세 이상의 청소년과 대학생 90명이 자원 봉사 활동에 동참하며 3팀으로 구성되어 된다. 이들은 참좋은인연 BUD가 조직한 'BUD 청소년 해외봉사단' 1기다. 참가자는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모집하였으며,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1박 2일간 해외 자원 봉사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이 있다.

주요 활동지는 참좋은인연 BUD가 건립한 룸비니 프르니하와 마을 BUD METTA SCHOOL(초·중·고등학교)와 포카라 라쪽마을 BUD 보육센터, 카트만두 바그마티강 등이다. 이번 방문으로 카트만두에 새로운 BUD SCHOOL(초·중·고등학교) 건립의 초석을 다지려 한다. 해외

봉사단 주요활동으로는 주민 및 아동 대상 위생 교육, 한국어 및 예체능 교육 등의 교육 봉사 활동과 환경 정화 활동인 '클린 네팔 (Clean Nepal)' 캠페인 등이다. 지역 봉사 활동과 학교 시설 보수, 공정 무역을 위한 커피나무도 심는다. 또한 네팔 지역 전통문화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홈스테이 등의 현지인과의 교류, 한국 문화 알리기의 문화 교류 활동을 하고 2박 3일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다. BUD 청소년 해외 봉사단은 귀국 후에 해외봉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해서 네팔 어린이들의 상황을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BUD는 청소년 해외 봉사단을 매년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실시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나눔을 실천하려고 한다.

문의: 참좋은인연 BUD 1666-0825

ARS후원: 1666-7667

국제구호개발 INGO 참좋은인연 BUD

### BUD 청소년 해외봉사단 1기 모집

참좋은인연 BUD와 함께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세계와 소통할 주인공들을 모십니다.

활동지역: 네팔

- 1차 2012년 7월 23일 ~ 8월 2일 [야간]
- 2차 2012년 8월 6일 ~ 8월 16일 [야간]
- 3차 2012년 8월 20일 ~ 8월 31일

(상기 일정은 항공사정 및 현지국가 사정으로 다소 변경 가능합니다.)



# 불교에서 보는 자유와 평화 II

이 글은 3월 22일 시카고 불타사 주지 현성스님이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내용 전문입니다. 세계일화 15호에 이어 두 번째 글을 연재 합니다.

이 한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형태도, 냄새도, 맛볼 수도 없어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분명히 있으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하자니 볼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으니 수행자들이 각자가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한 마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원융성(圓融性)이다.** 한 마음은 어디에나 어느 존재에나 있으며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원융성이 있다고 하셨다. 한 마음에서 한 생각이 찰나 사이에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고, 현실이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 있을 때 전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역동성이 있다. 인류 역사에서 왕권에 의해 왕실과 백성 사이에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왕권제도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과 전제군주, 공산정권 등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바뀌는 것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도 원만하게 융합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품이다. 한 개인이나 사회가 아무리 지독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한 마음의 원융성에서 나온다.

**둘째는 한 마음의 공성(空性)이다.** 태허와 같이 텅 빈 공(空, empty)이지만 이 우주가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일체 존재에 없는 곳이 없다는 이 원리가 불교의 중생 평등사상이다. 그리고 삼라만상이 다 소멸된다고 해도 이 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마음은 시작이 없는 데서 출발하여 끝이 없는 마지막에까지 다 있다는 이 원리가 불교의 불생불멸(不生不滅)사상이다. 그리고 또 이 공(空)에서 일체 삼라만상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생멸법과 연기법(緣起法)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을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 한다. 또 이와 같이 생멸이 반복하는 현상이 불교 윤회설(輪廻)의 원리이다.

**셋째는 한 마음의 반야지혜성이다.** 사람들이 식견을 넓히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지식에서 만들어진 생각으로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너의 생각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니 현재를 보는 눈을 멀게 한다. 결코 사실대로 볼 수 없다.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변하는 줄 모르고 보는 눈, 그리고 너라는 독립적인 존재는 본래 없는 것인데 독립적인 나라고 알고 보는 눈은 모두 허망한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니 모두 착각이다. 착각은 병고의 원인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반야지혜를 증득하라. 반야지혜는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이니, 이 반야지혜를 증득할 때, 비로소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를 얻게 되고 이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하셨다.

**넷째는 한 마음의 자업자득성이다.** 어떠한 행위에도 자업자득의 인과법이 따르는 것이니 한 쪽으로는 일체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보시(넉게 베푸는)바라밀(원만하게 완벽한 지혜)에 정진할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철저히 순결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밖으로 나가는 마음, 밖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 오만한 마음 등을 자신의 한 마음으로 돌려 비취보고 내 마음의 잘못을 깨우치고 참회함으로써 마음의 고요함과 편안을 얻고, 더 깊이 들어가 모든 병과 고뇌를 치유할 수 있는 창조적 지혜, 반야바라밀이 들어나게 해야 한다. 이 반야바라밀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지혜를 의미한다. 반야바라밀과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시카고 불타사 +1-773-286-1551



## 홍콩 수봉선원, “Returning to Our Root”

홍콩 수봉선원 소속 불자들이 지난 5월 1일~7일까지 1주일 일정으로 “Returning to Our Root(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 아래 한국을 찾았습니다. 수봉선원은 고승 산행원 큰스님께서 1970년대 초반 서양에 한국불교의 씨앗을 심기 바로 이전 60년대 후반 일본을 거쳐 다음 연고지로 홍콩에 흥법원을 세우신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필자도 방문해 보았지만, 중국불교의 자존심이 의기양양 도처에 흐르고 있는 국제도시 홍콩에서 중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한국인 스승이 선사한 귀중한 선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은혜를 지금도 보석처럼 받들며, 한국 식 법복과 한국어 염불로 매일같이 수행정진의 끈을 놓지 않으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자비롭게 화답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히 홍콩 불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준 순례였습니다. 수봉선원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송산스님의 제자 대관스님(홍콩 비구니 스님)과 33명의 홍콩불자(서양불자와 한국인 불자가 소수 포함됨)가 일심으로 뭉친 순례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문화와 융화되면서 선불교가 꽃피웠고, 그 수행법과 전통이 한국에 전래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명

실상부한 선불교가 현재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그 자취가 희미해진 선불교를 홍콩의 불자들에게 송산스님을 통해 다시 반대로 전파 되었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기획된 순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정은 본인들의 스승 송산스님과 그 전대 스승들이신 만공, 경허스님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간월암, 마곡사, 부용암, 수덕사, 정혜사 그리고 송산스님께서 주석하셨던 화계사와 말년에 창건하신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를 참방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의 현대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는 국제선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비구니 스님 사찰 진관사를 더불어 방문하며 가열찬 한국불교의 수행풍토 뿐만 아니라 한국 승가 특유의 따뜻한 정을 온전히 느끼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는 고마움의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혜사에서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청취와 즉문즉답의 귀중한 시간도 가지고, 비구 스님들 전용 선방인 정혜사 선방에서 잠시 좌선할 수 있는 ‘특혜’까지 누리는 기회도 가져 참가자들의 한국불교에 대한 고마움은 더욱더 커졌으며, 홍콩에 돌아가서는 더욱더 수행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글: 화계사 국제선원 도감 혜통 / 사진: 애니타임투어



## TARA(북가주 청년불자들의 모임), 정기모임이 있던 날

지난 6월 2일 TARA는 오를랜드 보리사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가지는 정기모임이 있었다. 1부는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의 집전으로 법회를 봉행하고 2부는 TARA 일정 및 안전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후 간단한 식사 자리를 끝으로 모임은 해산이 되었다. 올해 초 청년 불자들이 약속했던 왕성한 활동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TARA는 6월 14일부터 있을 KAYBA SUMMER CAMP(삼보사 템플스테이)에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참여를 약속하였고,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한 TARA 여름 캠핑을 기획하였다. 이 행사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Doran Park에서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8월 11일 토요일에 ‘좋은 인연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파티를 가질 계획이다. 이는 TARA의 본래 취지를 바탕으로 좋은 친구,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자는 의미를 달고 파티를 기획하고 있



다. 종교를 떠나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인 듯하다. 앞으로도 TARA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 글: 보리사 주지 형전스님

### 좋은 인연 만들기 - 타라 와인파티

- 날 짜 - 8월 11일 토요일
- 참가비 - \$30
- 시 간 - 저녁 5시 ~ 9시
- 참여 가능한 사람
  -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 장 소
  - 112 Northgate Ave. Daly City, CA 94015



#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국외 한국사찰 봉축 모습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미국 전역의 한국 사찰이 27일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자비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한국사찰 대부분은 오전에 법회를 올리고 오후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석가탄신을 축하하는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저녁 무렵에는 연등에 불을 밝히고 사찰 일대를 돌며 부처님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기를 서원했다.

① **뉴욕불광선원**(주지 휘광스님) - 헌공의례를 시작으로 삼귀의, 발원문 등 법회를 마치고 야외에 마련된 아기부처를 물로 씻는 관육식을 거행했다. 스님들에 이어 불자 400여 명은 정성어린 마음으로 아기부처에 물을 부으며 죄와 번뇌를 씻고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이날 법회에는 유니온신학대 폴 니터 교수, 뉴욕지구한인불교신도회 고창래 회장, 뉴욕한국문화원 이우성 원장 등 내외빈도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특히 지역주민을 비롯해 타민족 불자도 많이 참석하여 현화와 관육식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미동부해외교구장 휘광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고통 받고 있는 일체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 “부처님의 자비원력으로 마음가짐을 열심히 닦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동포사회의 경기회복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법요식 후 오후에는 법당에서 사찰 어린이부·중고등부·청년부·일심회 등이 나와 축하잔치를 펼쳤다. 또한 불자 자녀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② **LA 고려사**(주지 묘경스님) - 합창단의 찬불가에 이어 회주(현회)스님의 법문, 주지스님과 운영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묘경스님은 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감축드리며 선문(禪文)에 나무 부처님은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고, 도자기 부처님은 놓치면 깨어지고, 금동불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부처님은 타지도, 깨지지도, 녹지도 않으며 누가 훔쳐 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부르면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합시다”라고 말했다.

③ **OC 정혜사**(주지 석타스님) - 봉축법회를 봉행한 후, 법당 외부서 거행된 3부 행사에서 참석한 스님들이 불자들 팔목에 축복실을 감아 주며 축복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④ **뉴욕 원각사**(주지 지광스님) - 지광스님의 타종으로 시작된 법회는 점등식, 삼귀의, 발원문과 조일환 동국대교수의 봉축사에 이어 부처님께 향과 등, 차, 과일, 꽃, 쌀을 올리는 육법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⑤ **뉴욕 청아사**(주지 석담스님) - 불자들과 석담스님이 다채로운 봉축 축하 행사를 마친 후 법당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⑥ **카멜 삼보사**(주지 대만스님) - 예불 후 불자 200여 명은 경내에 조성된 반주삼매처에서 아기 부처님 관육식을 거행했다. 이날 삼보사는 몬트리외 사물놀이단과 국방외국어대학 한국어 학교 부채춤 공연단을 초청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했다.

⑦ **시카고 불타사**(주지 현성스님) -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다채로운 예술로 봉축 축하 법회가 열린 제6회 불타예술제 및 기념행사에는 약 500명이 함께 했다. 불타예술제는 연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과 제등행렬로 시작했다. 지난 6개월 간 준비한 무대는 무용, 라인댄스, 어린이합창, 피아노 5중주, 태권도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불타예술단은 불교음악과 불교춤을 바탕으로 대북, 장구 등 한국 전통악기 및 무용을 접목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26일 전야제에 함께한 참석자와 주지 현성스님이 기념 촬영을 했다.

⑧ **산브루노 여래사**(주지 소원스님) - 봉축법요식에서 법사로 초청된 스리랑카 스님이 법문을 하고, 소원스님이 통역을 했다.



## 조계종 전법단장 미주지역 전법순회 예정

조계종 전법단장(단장 계성스님, 대구 유가사주지)은 6월 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수실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법단장 계성스님이 미주지역 순회법회를 열어 해외포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법회 일정은 6월 17일 뉴욕 원각사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법회를 가질 예정이며, 8월 5일 LA 정혜사에서 회향한다.

국제포교전법을 위한 전법단장스님의 미주지역 전법순회 추진목적은 해외교구 및 미주지역 사찰의 포교활성화 지원이다. 이를 위해 미주 8개 지역 순회법회를 가지며 미주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한 포교책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법단장 계성스님은 “미주지역에는 한국사찰 130여 개가 산재돼 있지만 법회를 주관할 법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미주지역 순회를 계기로 전법단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 있는 한국사찰에 대한 법사지원 문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미주지역 포교현황 파악 및 종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_ KBIN 간사 선정화

6월 3주	6월 17일	뉴욕	원각사
6월 4주	6월 24일	보스턴	문수사
7월 1주	7월 1일	뉴욕	불광선원
7월 2주	7월 8일	필라델피아	관음사
7월 3주	7월 15일	뉴욕	원각사
8월 1주	8월 5일	LA	정혜사





# 쇼핑몰에서 불교축제, 대중에 더 가까이

## 태국 사찰박람회와 불교영화제

부처님의 깨달음 2600년을 봉축하는 삼 부다 자안티를 기념하기 위해 부다다사인 다파노연구소가 방콕시와 함께 큰 축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심 속으로 옮겨와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그중 '란보디페스티벌'은 로열파 라곤몰에서 5월 20일까지 열렸고, 6월 초에는 스님들이 엄선한 불교영화 30편을 상영하는 불교국제영화제가 센트랄월드에서 열렸다.

란보디페스티벌은 불교활동을 도심 번화가에 옮겨 놓은 사찰박람회로 악을 상징하는 물건에 공을 던지는 태국 전통놀이 난왓과 강의, 콘서트, 버스 운영 등 여러 가

지 활동으로 불교를 알렸다. 100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해 박람회가 북적였으며 불교가 결코 지루하지 않으며 도시의 삶과 잘 맞는 종교임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에게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다. 두 행사를 주관한 부다다사인 다파노연구소는 부다다사 스님의 역작들을 보관하고 전법하는 곳이다. 연구소는 두 행사를 통해 불교의 새 영역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종교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신도들에게 불교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에 마음을 열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불교국제영화제를 제안한 자야사로서 님은 "세익스피어나 켄 로치를 선지식의

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평생 동안 남는 기억을 만들어 주는 이야기로 사랑과 미움, 자비와 악행, 복수와 용서 등의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찰 박람회에서는 태국

전역의 집중수행과 선센터 관련 안내서, 파우토스님이 쓴 '카란코름'에 관한 전자

책 등 새로운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3개가 출시됐다.

방콕포스트 [2012. 5. 16]

▼ 태국 에메랄드사원



## 고타미 비하라,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태동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여성 출가자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라는 이름하에 말레이시아의 한 단체가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테라바다 여성출가자들을 위한 센터인 고타미 비하라를 세웠다. 부처님의 이모이면서 최초의 비구니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스님을 따라 이름 붙여진 이 센터는 사라 나카라스님이 공식적으로 개원을 선언했다. 개원행사에 인도네시아의 산티니스님, 베트남의 루팍스님, 태국의 담마난다스님 등 아시아 출신의 저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했다.

말레이시아 불교계에서 대승불교 비구니 승가는 잘 확립되어 있지만 테라바다 교단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타미 비하라는 토착 테라바다 비구니 승가의 태동을 향한 그 첫 걸음을 상징한다. 고타미 비하라는 말레이시아 스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여행하는 외국인 여성 수행자들에게 숙소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테라바다 교단에서 8계나 10계를 받는 여성 출가자가 많지만 경제적 지원 등의 부족으

로 비구니계를 받는 출가자는 거의 없다. 고타미 비하라는 지역 불교계의 도움으로 곧 지금의 상가 3층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의 편안한 곳으로 곧 옮겨 가게 되었다.

The Buddhist Channel [2012. 6. 4]



(관세음보살)

## 불교는 나의 힘, 인도 볼리우드 스타 '파울리 담'

볼리우드의 떠오르는 여배우 파울리 담이 '부다 푸르니마'라 불리는 인도의 부처님오신날, 인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불교신앙으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울리 담은 "7년째 불교를 믿고 있다. 믿기 시작한 첫해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왔다. 불교를 통해 삶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너무 행복하다"고 밝혔다. 파울리 담의 정신적 지도자는 일본 불교인인 다이 사쿠이케다 박사다.

파울리는 폭력적 내용이 있는 'Hate Story'에서 대담한 연기를 선보였다. 벵갈리대학원 화학과 공부를 마친 파울리는 부모님이 자신의 대담한 연기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하면서 "감독님이 훌륭하고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신인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 성장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대담함은 그 자체로써 아름다움입니다."라고 말했다.

The Buddhist Channel [2012. 5. 7]

◀ 파울리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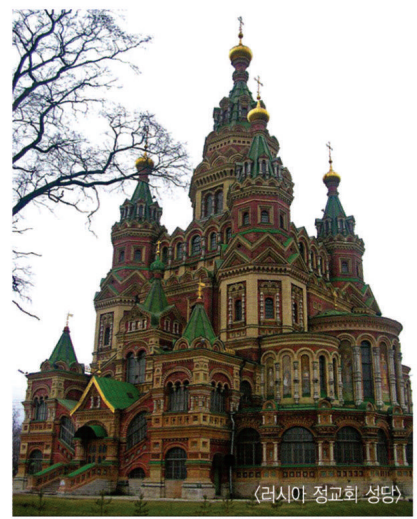


## 러시아 최초 '불교백과사전' 출간

법의 씨앗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다. 최근 불교에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에서 불교 철학에 관한 백과사전이 출판됐다. 5월 23일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스크바 철학학회에서 열린 국제비교철학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출간 되었다.

1,045쪽 분량의 백과사전은 마리에타 스테판안츠 박사가 편집했으며 많은 학자들의 도움과 공헌으로 완성됐다. 철학학회 국장 압두살람 구세이노브 박사는 "이번 백과사전은 불교 철학에 관한 것으로서 러시아 자체 내에서 출판된 최초의 불교철학 총서"라고 말했다.

www.buddhadharma.com [2012. 5. 30]



(러시아 정교회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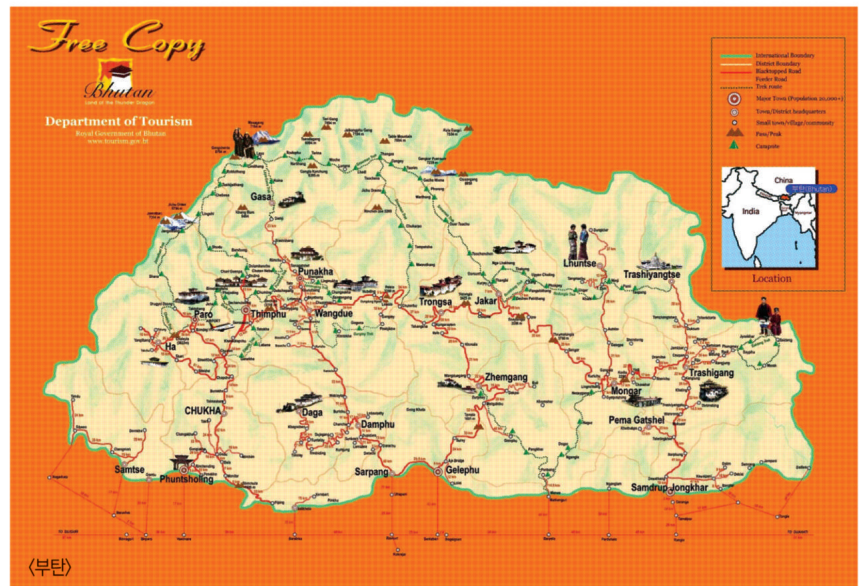
## 부탄에서 열린 '마운틴에코 문학축제'

용의 나라로 알려진 부탄이 5월 20일에서 26일까지 제3회 마운틴에코 문학축제를 개최했다. 이상적인 불교왕국인 부탄에 문학가와 음악가들이 모여 인도, 부탄 두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등 밝히기 의식과 함께 축제를 시작했다. 이번 축제는 인도와 부탄 작가들에게 인도와 부탄의 다양한 문학을 이해하고 문화에 대한 열린 대화를 위한 장을 제공했다. 부탄의 아쉬 도르

지 왕모 왕축 왕비와 굴자르 시인 외 많은 작가들이 참석했다.

축제 마지막 날 부탄 학자 카르마 폰초 박사는 "큰 스님들께서 각자의 내면에 행복을 주는 최고의 보배가 있는데 마음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행복에 관한 부탄의 독특한 견해를 보존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www.buddhadharma.com [2012. 5. 30]



(부탄)



# 집중조명 세계평화를 위해 자비선을 수행하는 사람들

## 마힌다스님의 “세상을 자비롭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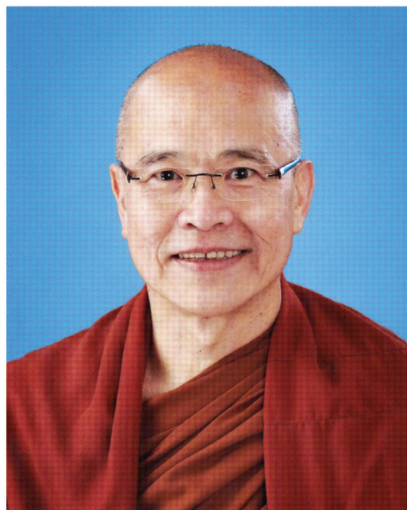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마힌다스님이 이끄는 알로카재단(Aloka Foundation)이 2012년 새해 벽두 자비경을 24시간 끊이지 않고 독송하는 법회를 시작으로 “세상을 자비롭게”라는 프로젝트를 발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을 자비로 연결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여 평화와 조화, 안정을 이루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힌다스님은 1949년생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1976년 스리랑카 스리 담마난다 나야카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이후 인도, 버마, 스리랑카, 태국의 여러 선사 밑에서 수행을 하였다. 부처님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세계 30여 개 나라를 다녔다. 지난 32년 동안 불교초심자과정올 매년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페낭, 싱가포르, 홍콩, 호주에서 안거기간에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알로카재단은 알로카라마를 통해 주말 집중수행과 법회 모임을 기본으로 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재난 대처 프로그램,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한 식물 심기, 노인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주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힌다스님은 또한 호주에서 ABM(Australian Buddhist Mission)법인의 지도자이며 ABM과 함께 호주 여러 지역의 단체뿐만 아니라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서 불교와 수행, 일상의 삶에서의 응



▶ 마힌다스님과 '세상을 자비롭게' 로고



용에 대해 강연과 세미나를 하고 있다.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평화와 조화, 안정을 위해 마음의 긍정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세상을 자비롭게”는 세계평화를 위한 발원 아래 세계 곳곳에 흘

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비선수행과 기도를 하는 프로젝트이다.

현대인은 격변하는 불안정한 세상에 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수행하고 단순하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삶을 통한 자기 변혁이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의 다양한 고통과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바로 보아 인간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자비심을 일깨워야 한다. 자비(Metta)는 경계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곧 “세상을 자비롭게”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 채우는 프로젝트이며 자비의 강력한 치유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이타적이게 하며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모든 부정적인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빛과 사랑, 조화로 가득하게 하려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참자들은 한 달에 두 번 초하루와

보름날 15분 동안 자비선을 수행하고 자비와 관련된 주력과 기도를 하거나 이외 경전독송 등의 방법으로 참여 하더라도 자비심을 내어 하면 된다. 마힌다스님이 이끄는 방식대로 자비선을 따라할 수도 있다. 기도가 끝난 후 그 공덕을 세계의 평화와 조화, 안정을 위해 회향한다. 또한 모든 존재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고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이 매 순간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세상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일하기를 발원한다. 각 나라마다 보름날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공식사이트인 [www.mettaroundtheworld.org](http://www.mettaroundtheworld.org)에 공지된 시간에 맞춰 수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세계를 자비의 띠로 연결하여 평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세상을 자비롭게”는 2013년 5월까지 계속된다. 입재 법회에 27개 불교단체가 자비경을 끊이지 않고 독경했고, 호주가 영상 방송을 통해 동참하는 등 첫날부터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개인과 단체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400,000명의 사람들이 신청했다.

자비선 수행에서 나오는 자비의 긍정 에너지는 바다의 물결들이 합쳐져 커다란 파도를 만들어내듯 끝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 세상을 감싼다. 또한 많은 가족과 친구들의 참여로 모아진 자비심의 강력한 힘은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세상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 순수한 불교라야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어 서양에 불교를 잘 전하는 법 - 브람스님

불교국가가 아닌 나라의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언어로 전달된 순수한 불교를 전하면 그들은 빠르게 불교를 모든 진리 중 가장 귀한 가르침으로, 모든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로 받아들인다. 호주를 비롯 서양에서 불교가 잘 성장할 수 있었던 4가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설법

불교의 훌륭한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불법은 변할 필요가 없지만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삶과 관계없는 지루한 설법을 하는 스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법을 설하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세기에 서구 종교인과 학자들은 불교를 고통 위주로 해석해 염세적인 종교라고 말하곤 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성제를 고통이 아닌 행복에 초점을 두고 설법해야 한다. 부처님도 “열반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설하셨다. 내가 사성제를 이런 방식으로 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법

을 들으러 찾아왔다.

### 2. 절을 찾기 쉽게

많은 동 서양 불자들이 절에 가길 낯설어 하는데 절에서의 전통적인 의례가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님들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스님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을 것이다.

한편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절에 갈 시간을 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찰이 책과 CD,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다가가고 가정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게 법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물을 짓지 않고도 세계 곳곳에 많은 제자들을 둘 수 있다.

### 3. 삶의 관련성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의 어떤 관련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추상적인 철학이나 특별한 의미 없는 의식, 이성애 반하는 논리에 신경 쓰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러나 사람들은 현실의 삶 속 문제들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다. 나는 그동안 윤리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개개인의 행복의 수치를 높여준다는 점을 쉽게 설법했다. 그 결과 많은 청중들이 5계를 지킨다. 동료들, 가족,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삶에 더 많은 평안을 가져다준다고 이해시키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제자들은 화도 덜 내고, 용서도 잘 한다.

선수행을 하면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미리 살피게 되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내 절의 신도들은 모두 열렬한 수행자들이다. 이제 가지 불교 수행-계, 친절, 선-에 대해 개인의 행복과 성장에 관련된 틀에서 설법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매력을 느낀다. 다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므로 곧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보인다. 자신에게 관련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 불교가 그들에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 4. 모범을 보이기

그러나 위의 방법들은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스님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호주의 한 여성 불자는 자신이 쓴 책에 스님들이 겸손하게 살면서 계를 잘 지키고, 매우 열심히 일하면서도



(중심사 탑)

행복한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삼보에 귀의하고 자신을 불자라고 말했다 한다. 불교가 성장하려면 스님들의 자비롭고 현명하며 덕을 갖춘 자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절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음 세대에 귀감이 될 만한 스님을 길러내는 데에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순수하게 잘 지켜낼 때 부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불교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내 외국법당,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의 여러 외국 법당에서 봉축행사가 이어졌다. 지난 5월 27일 한국YBA 동두천이주민센터 네팔법당 용수사(주지 우르겐스님)에서 부처님오신 날 축하행사를 열었다. 2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우르겐스님을 비롯한 히말라야라마회 스님들 6명이 전통적인 푸자법회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르겐스님의 아버지이자 재가 스님인 노르부라마는 법문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며 “힘들 때 불심에 기댈 수 있어야 진정한 불자”라고 하며, 네팔인들에게 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느 때와 달리 네팔인들은 채식으로만 점심공양을 준비했고, 육불식과 공양을 마치고는 다 같이 모여 컵연등 만들기 경연을 벌였다. 컵등만들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칼쌍라마는 “우리 네팔불자들이 이렇게 모여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우승소감을 전했다.

한편, 몽골법당에서는 6월 4일 한강에서 물고기를 방생하는 행사와 저녁 봉축법회를 진행했다. 몽골법당 주지 바트보양스님은 방생법회를 마친 후 “방생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봉축을 축하하는 행사로, 보통 몽골에서는 말,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초원에 방생하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게 물고기 방생으로 대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녁에 진행된 봉축법회에서는 손수 만든 초를 부처님에게 공양 올렸다. 몽골식 초대인 ‘졸’을 깨끗이 닦은 후, 일일이 숨을 꼬아 심지를 만들고 버터 기름을 조심스레 부어 완성된 것이다. 초 공양은 법회 중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차례대로 초에 불을 붙여 운수리에 광명이 비추길 서원했다. 한국사회에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며 모두들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기원한다며 주지스님은 봉축사를 전했다.

마주협 사무국 02-720-7095



(좌)네팔법당의 관불의식 (우)몽골 전통의 초공양하는 모습

## 전등사 인연지기 “제7회 이주민 문화축제” 열어

지난 6월 3일, 전등사 인연지기(대표 범우스님)는 ‘제7회 이주민 문화축제 - 아시아는 친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미얀마, 태국 등 5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참여하여 단주 만들기, 연꽃 만들기, 인경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전통혼례 한복을 입고 사진 찍기, 고향에 엮서 보내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또한 국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공연이 있었다.

년째 강화이주여성 친정부부 초청과 친정방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안김순(필리핀)씨와 이춘링(중국)씨가 모두 암으로 투병 중인 친정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다. 조안김순씨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등사의 후원으로 고향에 가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등사 인연지기 032-937-0125

이와 더불어 전등사에서 올해로 4

- ① 공연전경
- ② 베트남 공연
- ③ 연등만들기 체험
- ④ 한복체험



## 다문화학생들과 저소득층학생들 난타공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시아 밝음공동체(대표 도제스님)에서 운영하는 오색종이국악합창단은 우리 전통국악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전래동요와 동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합창단은 지난 5월 13일에 열린 연꽃문화제에 참가하여 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뜻 깊은 경험을 하였다. 단원 중 한명인 임미주 학생은 “다양한 문

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20일에는 오색종이국악합창단원과 다문화가족 60명이 전남 담양으로 딸기밭 체험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거닐며 우정이 쌓였고, 26일에는 예술회관에서 뮤지컬 ‘피터팬’을 관람 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였다.

아시아밝음공동체 062-236-0102



## “다문화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 학술대회 개최

지난 6월 3일, 통도사 반야암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반야불교문화연구원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주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총 4개의 발표가 있었으며, 크게 이론적부분과 실천적 부분으로 나눠 발표하였다.

이론적 부분에서는 “다문화 담론과 불교 정신(초기불교 입장에서)”와 “원융무애와 불교다문화(대승불교 입장에서)”를 발표하였고, 실천적 부분에서는 “이주노동자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다문화 실태와 불교적 대안”과 “한국적 다문화 교육과 불교”가 발표되었다. 특히 마주협 전담위원인 김선임박사가 발표하고 상임공동대표 도제스님이 논평



하였다. 이론과 현장의 만남, 학자와 실무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번 학술대회에서 불교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마주협 사무국 02- 720-7095